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강 경 선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집단 창작 중심 음악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201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백 수 정

집단 창작 중심 음악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강 경 선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백 수 정

인 준 서

백수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5월

심사위원장 고 은 미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강 경 선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양 은 아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집단 창작 중심의 음악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S구 A지역아동센터 아동 5명을 대상으로 2016년 3월 11일 부터 4월 23일 까지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 주 1-2회, 매 회당 60분, 총 11회기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해 사전·사후 자아존중감 척도와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를 측정하고, SPSS 20.0 Wilcoxon Matched Pair 검정을 통해 그 차이를 비교분석 하였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질적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참여자들의 경험 및 변화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위요인을 도출하였다.

양적 연구 결과,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 < .05$) 차이를 보였으며, 자아탄력성은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p > .05$), 사전점수에 비해 사후 점수가 증가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질적 연구 결과, 참여자들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경험의 변화는 ‘긍정적 자기 인식’, ‘자기주장능력 향상’, ‘소속감’, ‘긍정적 대인관계’, ‘심리적 지지’ 로 5개의 하위요인이 도출되었고, 자아탄력성에 대한 경험의 변화는 ‘정서조절능력 향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으로 2개의 하위요인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집단 창작 중심 음악 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며, 또한 새로운 치료 중재 방안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시사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문제	5
II. 이론적 배경	6
1. 지역아동센터	6
1) 지역아동센터의 기능 및 역할	6
2)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8
2. 자아존중감	10
1)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감	10
2)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아존중감	12
3. 자아탄력성	14
1)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	14
2)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아탄력성	15
4. 집단 창작 중심 음악치료	16
1) 창작 예술의 치료적 가치와 의미	16
2) 집단 창작 중심 음악치료	18
III. 연구 방법	22
1. 연구대상	22
2. 측정도구	22

1) 자아존중감 척도	22
2) 자아탄력성 척도	23
3) 내용분석	24
3. 연구 설계 및 절차	24
1) 연구설계	24
2) 연구절차	25
4. 프로그램 구성	25
1) 프로그램 회기 구성	25
2) 프로그램 구성	26
5. 자료분석	30
IV. 연구결과	32
1. 양적 연구 결과	32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32
2) 자아존중감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33
3) 자아탄력성에 대한 프로그램 효과	36
2. 질적 연구 결과	40
1) 자아존중감에 대한 경험 및 변화	40
2) 자아탄력성에 대한 경험 및 변화	46
V. 결론	49
1. 결론 및 논의	49
2. 제언	51
참 고 문 헌	52
ABSTRACT	62

부 록64

표 목 차

<표 III-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22
<표 III-2> 자아존중감 척도의 4가지 하위영역과 문항구분	23
<표 III-3> 자아탄력성 척도의 4가지 하위영역과 문항구분	24
<표 III-4>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	25
<표 III-5>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한 회기 구성	25
<표 III-6> 회기별 프로그램과 치료적 근거	27
<표 IV-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	32
<표 IV-2> 자아존중감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33
<표 IV-3>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	35
<표 IV-4> 자아탄력성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37
<표 IV-5> 자아탄력성 하위요인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	38
<표 IV-6> 자아존중감 경험 및 변화: 긍정적 자기 인식	41
<표 IV-7> 자아존중감 경험 및 변화 : 자기주장능력 향상	42
<표 IV-8> 자아존중감 경험 및 변화 : 소속감	43
<표 IV-9> 자아존중감 경험 및 변화 : 긍정적 대인관계	44
<표 IV-10> 자아존중감 경험 및 변화 : 심리적지지	45
<표 IV-11> 자아탄력성 경험 및 변화 : 정서조절능력 향상	46
<표 IV-12> 자아탄력성 경험 및 변화 :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48

그림 목 차

<그림 II-1> 집단 창작 중심 음악치료 모델	20
<그림 IV-1> 자아존중감의 사전·사후 평균점수	34
<그림 IV-2> 자기비하	36
<그림 IV-3> 타인과의 관계	36
<그림 IV-4> 지도력과 인기	36
<그림 IV-5> 자기주장과 불안	36
<그림 IV-6> 자아탄력성 사전·사후 평균점수	37
<그림 IV-7> 회복능력	39
<그림 IV-8> 대인관계	39
<그림 IV-9> 스트레스대처	39
<그림 IV-10> 인지능력	3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의 가정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 결혼 연령 증가, 저출산, 이혼율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로 인해 핵가족화 되고 편부모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허혜진, 2010). 이러한 핵가족화와 편부모 가정 증가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불충분한 돌봄과 지도감독을 초래 한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자녀 양육은 더 이상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 역할의 일부분이 되었다(김혜정, 양은아, 2013).

자녀 양육을 위한 사회적 역할의 필요성이 강조 되면서 2004년 보건복지부에서 법제화 한 지역아동센터의 보급이 시작되었다(김치영, 김선미, 2014).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보호, 교육, 문화적 지지, 정서적 지지 등 종합복지서비스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대표가 곧 종사자(교사)로 수행하기 때문에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들에 치중되고 있는 실정이다(박태정, 박형원, 이희연, 2010). 그러므로 교육서비스 이외에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에 맞는 아동의 특성과 흥미를 반영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의 도입이 요구된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기 아동은 주로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취약 계층 자녀들이다. 이러한 사회적 취약 계층 자녀들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사회·정서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는 저소득층 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 부부갈등, 우울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녀 양육 태도에 반영되어, 자녀의 사회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이희정, 2014).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한다. 황혜원(2013)은 저소득층 자녀의 자아탄력성이 양육자의 학력, 가정환경, 사회적 지지에 따른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환경이나 사건 또는 스트레스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이일경, 2015). 하지만 낮은 자아탄력성을 가진 학령기 아동은 또래 친구들에 비해 열악한 환경과 스트레스에서 스스로 적응하거나 회복하는 것이 어려워, 상대적 열등감과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임윤영, 2013).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자아존중감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높은 자아존중감이 아동 스스로 적응하거나 회복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시도와 방법들에 대한 자신감을 주기 때문이다(홍은숙, 2006).

김양이, 박미란(2007)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일반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보다 낮다는 것을 밝혔다.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아동은 일상에서 느끼는 갈등과 문제들을 쉽게 본인의 탓으로 돌리거나 우울함을 느끼며, 더 나아가서는 심리·사회적 부적응 상태로 빠질 수 있다(박희연, 2012). 신희건(2015)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와의 관계, 학교생활 정도, 학교성적, 또래집단과의 관계, 친한 친구 수, 경제상태, 형제관계, 방과 후 어른의 유무 순이며,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사이에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이 중 가장 높은 순위인 ‘부모와의 관계’는 사회적 취약 계층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박명숙(2010)은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이 부모와의 관계와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류우리(2015)는 아동이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자아존중감도 높다는 것을 밝혔다.

이렇듯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은 양육환경에 영향을 받아 아동의 심리·사회 영역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개인 것을 알 수 있다. 학령기

아동의 발달과업은 자아형성이며, 이 시기의 자아형성이 성인기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인 것을 고려하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선행연구에서처럼 낮은 자아존중감과 낮은 자아탄력성을 가질 수 있다. 때문에 이에 따른 사회·정서적 지지 방법의 모색을 필요로 한다.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집단 미술치료를 중재로 한 강명희, 신근화(2011)의 연구와 이현주(2011)의 연구에서 모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를 보고하였다. 이가나, 김유미(2013)는 이야기치료를 활용한 집단상담 중재가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조효숙과 이진숙(2008)의 연구에서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일경(2015)은 통합적 예술치료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었음을 증명하였다.

또한 음악치료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최애나(2007)의 연구에서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정진희, 정규진, 최애나(2015)는 톤 차임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하였다. 김숙정(2013)은 음악극 만들기 경험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표현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자아탄력성 향상과 학교적응을 위한 조경애와 강경선(2014)의 연구에서는 집단음악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치료사에 의해 구조화된

음악적 틀 안에서 자기표현을 유도하는 프로그램들을 주로 구성하였다. 이는 단시간 안에 쉽게 자기표현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자유로운 자기표현과 심층적인 자기탐색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예술 창작을 통해 폭넓고 자유로운 표현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새로운 치료적 접근 방법 개발을 시도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집단 창작 중심의 음악치료는 음악, 노래, 가사, 이야기 등을 창작 또는 재창작 하는 활동을 포함하므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치료적 접근이 될 수 있다. 창작 활동은 아동의 잠재적 창의력을 자극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하며 내면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통해 미학적으로 표출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이모영, 2008). 따라서 이야기, 그림, 시 등을 활용해 멜로디, 가사 등을 창작하는 활동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 창작 중심 음악치료는 아동에게 자연스러우면서도 다채로운 방법으로 감정과 생각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집단 창작 중심 음악치료에서 창작하게 될 창작물은 자기표현의 수단이며 동시에 스스로의 정체성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허혜진(2010)은 집단이 공동적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수행하는 창작 협동 과정이 타인과의 타협과 적절한 자기주장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따라서 창작을 하는 과정은 음악치료집단 안에서 자연스럽게 또래와 상호작용하고 관계 형성을 하도록 요구하여 사회적 기술 습득과, 긍정적인 자기 발견 및 평가를 하는 동기를 제공한다. 또한 치료의 마지막 단계에서 집단의 창작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아동이 성공적 경험을 하고 그를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박희연, 2012).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집단 창작 중심의 음악치료를 중재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기표현을 이끌어, 또래 관계 형성 및 성공적 경험을 통한 자아탄력성 향상을 유도하고,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도록 도모하며 실제로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집단 창작 중심의 음악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문제는 양적 및 질적 연구에서 다음과 같다.

1) 집단 창작 중심 음악치료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

2) 집단 창작 중심 음악치료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

3) 집단 창작 중심 음악치료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 아동은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 관해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지역아동센터

1) 지역아동센터의 기능 및 역할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 발달과 이로 인해 발생된 빈부격차, 그리고 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는 자본주의 사회의 가족 결손, 이혼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더 많은 양육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파생된 돌봄 서비스가 지역아동센터이다. 초창기 지역아동센터는 비 제도화된 ‘공부방’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다가, 2004년부터 ‘지역아동센터’로 제도화되었다(김치영, 김선미, 2014).

보건복지부(2016)의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서’에 따르면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다음 6가지의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방과 후 아동들을 돌보고 급식을 제공하는 아동보호기능을 한다. 이는 학령기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과 같은 권리보장과 급식지원으로 결식을 예방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교육의 기능을 한다. 교육기능은 아동의 학습능력을 제고하고 학교부적응을 해소할 수 있는 도움을 준다. 셋째, 정서적 지원을 한다. 정서적 지원 기능은 아동의 안정적인 심리, 정서와 건강한 신체발달을 강화한다. 넷째, 문화서비스 제공의 기능을 한다. 이는 문화경험으로부터 소외 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문화체험과 다양한 문화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다섯째, 지역사회 연계의 기능을 한다. 연계의 기능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그 가정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 내 후원 또는 자원봉사와 같은 아동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여섯째, 아동이 신변보호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 이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교육’, ‘재난대비 교육’ 등을 통해 아동이 스스로 신변보호 및 안전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오늘날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가정과 학교 사이의 또 하나의 상호보완적인 체계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임정기, 박현선, 정익중(2015)은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특히 다른 생활 시설들에 비해 이용 아동들의 낙인에 대한 부담이 적어 지역사회 내에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의 수가 30명 미만으로 아동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집과 가까운 위치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후에도 지속적인 접근과 관찰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고, 다각도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학령기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설립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부족한 국가 재정 지원’, ‘적은 종사자 배치 기준’, ‘미흡한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박태정, 박형원, 이희연, 2010).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역아동센터의 낙후된 설립 환경, 전문 인력 고용의 어려움, 종사자가 프로그램 제공과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 편향된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같은 지역아동센터의 전반적 운영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김미숙, 2006).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수적 증가에 따른 지원과 센터 이용 아동 및 종사자의 복지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

OECD 가입국의 아동복지 사업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보다 앞서 제도화 된 아동복지센터를 활성화 하고 있는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의 경우, 아동복지를 위한 기관 설립에 지원을 필수적으로 하며, 예체능 및 문화체험을 위한 ‘레저센터’와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숙제지도센터’ 등 더욱 체계화되고 전문성을 띄는 아동복지를 지원하고, 그에 따른 전문인력들의 고용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윤향미, 조문석, 오재록, 2013). 이러한 선진국들의 운영 방안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사업과 이상적인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아동센터의 발전 방향에 참고·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들은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운영된다. 보건복지부(2016)는 기본프로그램과 특화프로그램을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적인 프로그램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본프로그램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고, 특화프로그램은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말한다. 기본프로그램의 5가지 영역과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생활과 안전을 위한 보호 프로그램으로 ‘일상생활관리’, ‘위생건강관리’, ‘급식지도’, ‘생활안전지도’, ‘안전귀가지도’, ‘5대안전의무교육’을 실시한다. 둘째, 아동의 학습과 특기적성 그리고 성장과 권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숙제지도’, ‘교과학습지도’, ‘예체능활동’, ‘적성교육’, ‘인성·사회성 교육’, ‘자치회의 및 동아리 활동’을 포함한다. 셋째, 문화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견학’, ‘캠프·여행’, ‘공연’, ‘행사참여’ 등의 체험활동과 참여활동을 한다. 넷째, 상담 및 가족지원과 같은 정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연고자 상담’, ‘아동 상담’, ‘보호자교육’, ‘행사·모임’을 주관한

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기관홍보와 인적연계 및 기관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연계를 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이처럼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지침에 기재된 정규 운영 프로그램은 보호, 교육, 문화, 정서,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프로그램들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아동의 방임을 예방하고, 학교생활 및 적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지하고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는 역할을 함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들의 특성과 규모 그리고 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운영 프로그램들이 편향되고 있어 지역아동센터의 순기능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교육기능에 치중되어있다. 송 숙(2009)은 지역아동센터의 정규운영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가 교육지원 및 숙제지도 프로그램, 상담 및 관리 프로그램, 급식제공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예체능 교육, 문화프로그램,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가족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낮은 활성화를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교육기능에 치중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아동의 다양한 영역 발달을 위한 사회·문화적 경험의 기회를 제한 한다. 따라서 이러한 편향된 프로그램 운영은 지역아동센터의 순기능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특징 및 요구에 따라 개선이 요구된다.

지역아동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아동은 저소득층, 새터민, 다문화, 조손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자녀들이다. 사회적 취약계층 가정 아동들은 또래에 비해 문화체험·건전오락 등의 경험을 제공받을 기회가 적다. 아동들의 이러한 문화·건전오락의 결핍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연구에서 견학지도, 영화 및 연극체험, 집단 놀이 및 캠프와 같은 문화·오락영역의 프로그램들이 포함된 ‘특별활동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비율의 만족도를 나타

낸 결과로도 알 수 있다(노성향, 서혜진, 2014).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문화체험·건전오락 경험에 대한 결핍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제공받기 어렵고 기존의 학원과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구은미, 2010).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사자의 전문성이 보완되어야 한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종사자가 곧 교사의 역할을 병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전문성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성심, 김현자, 허정경(2007)은 보편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종사자의 자격제도를 보완하고 종사자의 전문성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선행연구에서처럼 지역아동센터의 이상적인 프로그램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과 그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 취약 계층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더 선호하고 즐거운 장소로 인식하며 건전한 놀이문화를 경험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김혜정, 양은아, 2013).

2. 자아존중감

1)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감

학령기 아동은 만 6세에서 12세에 해당되는 아동으로 신체, 인지, 사회적 측면의 발달이 미성숙한 단계이며, 주변의 환경과 학습에 따라 그 성장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학령기 아동은 대인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하는 과정 안에서 자신에 대한 발견과 생각을 가지게 된다(국립특

수교육원, 2009). 따라서 아동의 학령기는 관계 속에서 자신에 대한 발견과 생각을 통해 자아존중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얼마나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가에 따르는 개념이다(Schacter, Gilbert & Wegner, 2011/2012). 이러한 인식은 사회적 관계 형성과 관계 안에서 느끼는 소속감을 가질 때 이루어 질 수 있다. 김주남, 윤선아(2011)는 “자아존중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성공이나 실패의 경험, 타인과의 상호작용, 성숙도, 유전, 사회적 학습 등의 과정을 통해 발전하고 개인의 시각으로 확립 된다”(p. 101.)고 하였다. 즉, 개인을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은 환경과 학습에 영향을 받는다.

학령기 아동은 가정과 학교의 환경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 때문에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부모, 교사, 또래와의 상호작용경험에 영향을 받는다. 박미화, 김미정(2015)은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에 강한 정적상관이 있음을 밝히며,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오은주(2006)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낮은 자신감으로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만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관계형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며, 새로운 환경에도 적극적으로 적응하려는 노력을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자아존중감이 학령기 아동의 행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질수록 환경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지명숙, 홍상욱, 2014).

송인섭(2013)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첫째,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신뢰하여 타인의 편견으로 부터 자유롭다. 둘째, 자신의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타인에게 보여주며, 타인의 부정적인 모습도 잘 수용한다. 셋

째, 어떠한 문제나 상황에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자발적으로 행동 한다. 넷째, 어떠한 일이 주어졌을 때, 자기의 내면적 어려움에 집중하기보다 현재 주어진 책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즐길 수 있다. 다섯째, 타인에게 의존적이지 않으며, 자신의 결정을 믿고 따른다. 여섯째, 자기만의 원칙을 가지고 자기통제와 자기조절을 한다. 일곱째, 주변의 환경과 자신을 계속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자기 발견을 하고 또 그에 따라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간다. 여덟째, 가족이나 이웃 등 주위에 관심을 가지며 돕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아홉째,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대하고 관대하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워 쉽게 타인의 생각과 판단을 따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약점이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상으로 왜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와 존재 의미를 찾아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2)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아존중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은 저소득층 가정,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자녀들이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취약한 가정환경과 경제적 어려움은 아동이 정상적인 발달과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며, 또래 사이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부모로부터 전이된 정서적 불안과 긴장을 느끼도록 한다(신지현, 2008). 이러한 사회·정서 영역의 부정적인 영향은(최경순, 정현희, 1996),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일반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보다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한다(김양이, 박미란, 2007).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송연옥(2011)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측면에 연극치료가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고, 장운진(2010)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집단미술치료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마주리(2014)의 연구에서는 심리운동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은, 아동의 높은 자아존중감이 저소득층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에서 받는 영향을 완충하는 중재역할을 하여 아동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이경희, 성춘희, 김미정, 2014), 아동이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온전히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최미례, 이인혜, 2003). 또한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아동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아동에 비해 학교생활 적응과 교사와의 관계형성이 원만하며, 심리적인 위축과 우울감을 적게 나타낸다(옥경희, 김미혜, 천희영, 2001).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성취행동' 실행에 자신감이 있고 긍정적인 학업성적을 보인다(박시혜자, 송승민, 이유현, 2011; 조희숙, 2007).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은 아동이 가정과 학교에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확립하고, 정서·사회 영역의 균형적인 발달을 이루도록 하여(김현정, 최은영, 2014), 아동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이종석, 정득, 2015).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와 운영 프로그램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와 운영 프로그램들이 부모의 부재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동들이 제공받지 못했던 돌봄, 정서적지지, 학습지원등에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훈과 신혜중(2008)은 저소득층 아동들 중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 보다 이용하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지는 의미가 있다.

3. 자아탄력성

1)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

‘탄력성’(resilience)은 본래의 상태로 돌아온다는 개념으로 ‘회복력’의 의미를 가지며, 이는 어려움을 인내하며 견뎌내고 극복하면서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성향을 말한다(강희경, 2005). 이일경(2015)은 자아탄력성이 외부 환경의 부정적인 자극과 내면의 스트레스로부터 극복해나가고 유연하게 대처하며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이라고 설명 하였다. 임은주, 최승숙(2015)은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상황에 노출되더라도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다시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자아탄력성의 정도는 아동의 삶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자아탄력성은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다. 하지만 이러한 잠재적 능력의 발견 및 개발은 개인의 성장 배경과 성격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행동’과 같은 양육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최해주, 문수백, 2012), ‘낙천성’, ‘자율성’, ‘능동적 활동성’, ‘타인에 대한 공감’, ‘원만한 대인관계’와 같은 개인의 성격특성이 자아탄력성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다(정혜인, 2010). 고영희(2010)는 “자아탄력성은 성격특질이면서도 환경적인 맥락에 따라 증진되거나 쇠퇴할 수 있는 가변성을 지닌 개인의 내적 특성”(p.14.)이라고 하였다.

아동의 학령기는 가정에서 보다 더 확대된 사회적 집단인 학교에 속하게 되면서,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칙들과 생활습관들을 배우고 대인관계를 형성하

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 나가는 시기이다. 이 과정에서 아동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조희주, 2011). 이 시기에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대처와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이주연, 이지영, 2014), 아동이 높은 학교행복감을 가지도록 돕는다(강영하, 2012).

또한 높은 자아탄력성을 가지는 아동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분노의 정도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공성애, 문혁준, 2015), 충동적이거나 우발적인 행동을 제어할 수 있다. Block & Kreman(1996)은 높은 자아탄력성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능숙하고 안정적이며 우호적이라고 하였다. 노은숙(2010)은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이 낮은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좌절감, 불안감을 덜 느끼고 자신에 대한 신뢰가 높아 자신감이 있으며 타인과 자신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와 능동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아동이 안정된 정서를 가지고 유연한 융통성습득과 화합을 이루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2)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아탄력성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과 부모의 부재 그리고 불안정한 정서와 다문화에 대한 이질감을 경험하므로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행동을 보이고 우울감과 낮은 자존감을 가진다(강지현, 2009). 또한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지역아동센터 아동은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다(김소영, 이근매, 2010). 이러한 이유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높은 자아탄력성을 가지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일반가정 아동들 보다 환경적 어려움과 스트레스로부터 탄력적으로 회복하고 아동의 정서와 행동발달에 보호요인으로서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정서를 가지며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것과 자기조절 및 자기통제에 능숙하여 문제행동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주, 이승희, 2013). 높은 자아탄력성을 가진 아동은 욕구충족에 어려움이 있거나 분노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어긋나거나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수준의 분노표출방법을 택하지 않기 때문에 낮은 비행을 보인다(유장순, 이철원, 2014). 또한 높은 자아탄력성을 가진 아동은 실패 내성이 높아 어렵거나 힘든 일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그에 따르는 스트레스에 인내하는 힘이 있다(박상희, 2009). 따라서 높은 자아탄력성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내적·외적 어려움을 감당하고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부적응과 탈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아탄력성의 증진은 아동의 내적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초로 이루어진다. 홍은숙(2006)은 그 중에서도 특히 높은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자아탄력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자아탄력성을 강화하는 요인이 아동의 주관적·객관적 평가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강희경(2006)은 자아탄력성이 가정과 또래 그리고 교사로부터 받은 사회적 지지에 따라 증진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을 통해 자기결정성에 신뢰를 높이고 자기효능감을 확인하도록 하여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집단 창작 중심 음악치료

1) 창작 예술의 치료적 가치와 의미

창작 예술은 자신의 느낌과 생각, 감성을 자신만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독창성 있는 표현이다. 즉 창작 예술 작품은 개개인의 고유한 심

리·정서를 글, 그림, 신체, 음악 등의 매개를 활용하여 미학적으로 풀어낸 표상이다.

창작 예술은 표현을 위한 과정과 표현 그리고 감상을 하는 것이 모두 치료적 가치와 의미를 가진다. 문학, 미술, 무용, 음악 등의 다양한 예술치료 분야에서는 예술 창작 과정이 공통적으로 자신의 내면에 대해 알아가도록 하는 기회라고 설명한다. 최재영(2004)은 창작미술활동과정에서 이미지 탐색과 새로운 방법으로서의 형상화를 고민하는 것이 잠재적 자아를 인식하고 발견하게 한다고 하였다. 류분순(2009)에 따르면, 개인의 감정과 정신을 어떻게 신체 동작과 일치시킬 수 있는지를 자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심리를 이해하게 된다고 한다. 조희주(2015)는 개인의 내면에서 알아차리는 상징이나 이미지에 의미를 어떻게 언어적으로 부여할 것인가를 상상하는 것이 자신의 감정을 탐색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Austin(2008/2012)은 목소리를 통해 즉흥적으로 노래를 할 때 지금-여기에 있는 자신의 감정과 감각을 의식화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창의적 표현을 위한 구체화 과정이 인간의 잠재적 자아를 주관적으로 알아차리게 한다면, 창의적 표현 자체는 현실에서 자아를 구현하고 경험하게 한다(Atkins & Williams, 2007/2010). 예술적 표현은 사람의 잠재적 에너지를 ‘상징’과 ‘은유’로서 담아내는 미학적 승화 활동으로(강경선, 2011), 개인적 욕구를 표출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함으로서 치료적 기능을 한다(김경빈, 2002). 또한 예술적 표현을 통해 미적체험을 경험하는 것 자체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절정을 느끼게 함으로 의미가 있다(김주완, 2005). 더 나아가 창작예술작품의 감상은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자신에 대한 통찰과 평가를 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성취감과 동시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보완하게 한다(김민경, 2013).

창의적 예술 표현의 공유는 예술이라는 매체를 ‘대안적 의사소통’으로서

사용하여 타인과의 교류와 상호간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Nathan & Mirviss, 1998/2011). 예술 표현을 통한 교류는 자기노출에 대한 용기를 필요로 하며, 자발적인 사회적 참여를 하도록 돕는다(손남숙, 임호찬, 2004). 또한 타인의 생각, 느낌, 감정에 동일시하거나 이해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여 사회적 일원으로서의 가치를 깨닫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창작 예술은 내담자의 자아탐색과 실현 그리고 문제해결과 소통을 유도하는 촉매제라고 할 수 있다.

2) 집단 창작 중심 음악치료

집단 창작 중심 음악치료는 다각도에서 자신의 감정, 생각, 느낌 등을 탐색하고 구체화하여 그것을 하나의 음악으로 만들어지도록 하는 과정중심 치료이다. 이는 창작 미술활동과 문학창작 활동 등을 기초로 치료적 노래 만들기를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내담자가 노래 가사 채우기, 개사하기, 가사 만들기 등의 활동에서(윤다솔, 2016), 노래 주제와 가사 내용의 단서를 그림그리기, 이야기 만들기, 시 쓰기를 통해 얻고 구성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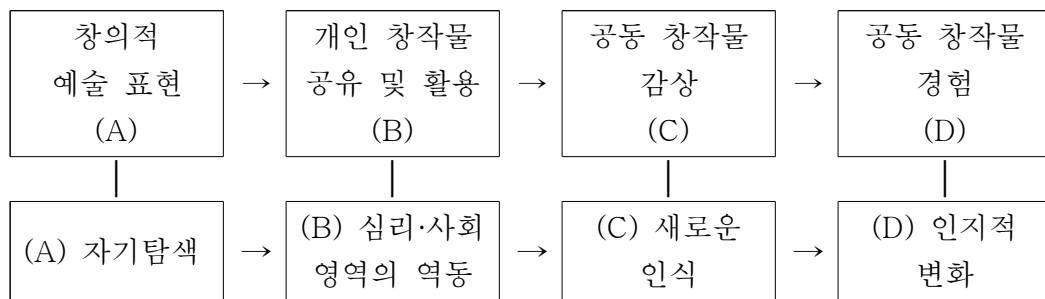
치료적 노래 만들기에서 가사 만들기는 명확한 음악적 구조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간단한 가사로 채워 넣기, 구체적인 감정과 생각을 개사하기,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가사 만들기를 통해 자기표현을 이끌어 낸다(임윤영, 2013). 이러한 노래 만들기 과정은 내면 탐색을 통해 심리적 역동과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하고 인지적 변화를 일으킨다(강정숙, 2005). 또한 노래 만들기는 주어진 과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성공적 경험을 하도록 하므로 성취감을 느끼고 창작 표현의 자신감을 가지게 한다(Baker & Wigram, 2005/2008).

노래 만들기 활동에서 가사 창작의 소재는 개인의 소망, 생각, 경험, 기분 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소재를 발견하고 통찰하도록 하는 것은 다양한 창작 예술 표현을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Nathan & Mirviss, 1998/2011). 문학치료와 미술치료 분야의 연구에 따르면, 그림, 이야기, 시는 내담자의 내면적 갈등과 잠재적 에너지를 외면으로 표현하게 하는 ‘창’이며 자신의 잠재적 자아와 만나고 소통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한다. 송명희, 오영이(2013)는 시 쓰기와 이야기 만들기가 개인의 감정과 생각을 의식화 하고 글로 표현하면서 자신에 대해 알게 하며, 표현의 배출구로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모영(2009)은 미술 활동이 지각된 이미지와 감성을 상징적으로 구체화 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여 자신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미술과 글은 다각도에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도록 하여 풍부한 내적 자원을 발견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충분하며, 개인의 감정과 생각을 담은 노래가사를 창작 하는 것에 기초과정이 될 수 있다.

집단 창작 중심 음악치료에서는 이러한 예술 표현들을 유도하고 개인 작업과 공동 작업을 통해 공유하도록 한다. 즉, 내담자는 개인이 창작한 작품을 집단 내에서 개별적으로 소개하거나 공동 창작활동에서 그 일부로 활용하게 된다. 이는 집단원들의 그림을 모아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과 각자가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이어서 전개해 나가는 것 같은 활동을 말한다. 만들어진 개인 창작물과 공동 창작물은 집단원들의 토의를 통해 노래의 가사로 쓰여지며, 불러지게 된다. 그리고 집단원들은 협동하여 창작된 노래에 맞는 악기 연주를 구성하면서 공동창작물을 완성해 나간다.

공동 창작물을 완성해나가는 과정에서 노래 가사 창작과 악기 연주구성을 위한 토의는 내담자가 자연스럽게 관계형성, 자기조절, 자기표현, 사회적 상호작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도록 한다(Nathan & Mirviss, 1998/2011). 또한

이러한 과정은 과제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을 느끼도록 한다(김동주, 2011). 때문에 집단 창작 활동은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하고 자기 개발과 자기표현 그리고 공감능력을 키워준다(최윤영, 2010). 더 나아가 창작된 노래가사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개인의 정서가 반영된 공동 창작물을 통해 극대화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내담자가 소속감을 가지게 하고(허혜진, 2010), 즐거움을 느끼도록 한다(임현정, 2009). 그러므로 집단 창작 중심 음악치료는 내담자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과 평가를 가지게 하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상호작용과 대처방법을 익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II-1> 집단 창작 중심 음악치료 모델

치료적 노래 만들기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이민화(2014)는 노래 중심 집단음악치료 활동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임윤영(2013)의 연구에서는 노래 만들기 활동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으며, 신아름(2014)은 노래 만들기 활동을 통해 정서 행동 문제 청소년의 유능감이 유의미하게 강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남여정(2009)은 알코올 의존자 자녀의 분노표현 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에 노래 만들기

를 사용한 음악활동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장승희(2009)의 연구에서는 치료적 노래 만들기 활동이 청소년의 열등감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처럼, 선행 연구들은 치료적 노래 만들기 활동에 대한 효과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노래 만들기, 연주하기와 같은 음악활동의 효과성에만 집중할 뿐 창의적인 음악활동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글쓰기와 같은 다양한 표현의 매체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다각도에서 탐색하는 것에서 부터 그 정서와 사고를 음악을 통한 표현으로 연결시키며 자연스럽게 사회와 나누도록 하는 총체적인 과정을 다루었다. 즉, 정형된 주제에서 부터 출발하는 창작이 아닌, 무형인 내면의 어떤 것을 형상화하고 구체화 하는 창작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포함한 치료적 접근 방법의 치료적 가치와 의미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기초 연구를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 S구 소재의 A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하는 초등학생 5명(여자2명, 남자3명)이 선정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표 Ⅲ-1>와 같다.

<표 Ⅲ-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	성별	나이	가정적 특징
1	남	8	차 상위 계층 가정
2	남	10	한 부모 가정
3	남	11	기초수급 가정 및 새터민 가정
4	여	10	맞벌이 가정
5	여	11	기초수급 가정 및 다문화 가정

2. 측정도구

1) 자아존중감 척도

Coopersmith(1967)가 개발한 Self-Esteem Inventory를 강종구(1986)가 번역한 척도로 4가지의 하위영역 ‘자기비하, 타인과의 관계, 지도력과 인기, 자기주장과 불안’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문항이다. 이 척도의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 α .88 이었으며,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Cronbach α .67 - .73 으로 나타났다(오은지, 2015). 부정문항에서는 역채점 하였으며, 높은 점수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2> 자아존중감 척도의 4가지 하위영역과 문항구분

하위영역	문항번호	긍정문항	부정문항
자기비하	1,3,11,15,16		1,3,11,15,16
타인과의 관계	6,7,9,10,20,21,22	10,20	6,7,9,21,22
지도력과 인기	2,5,8,14,18,25	5,8,14	2,18,25
자기주장과 불안	4,12,13,17,19,23,24	4,12,19,24	13,17,23

2) 자아탄력성 척도

정혜인(2010)이 개발한 ‘아동의 자아탄력성 척도’로 4가지 하위영역 ‘회복능력, 대인관계, 인지능력, 스트레스 대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4문항이다. 이 척도의 전체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 α .91 이었으며, 추출된 4개 요인의 요인별 신뢰도는 Cronbach α .74 - .95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 척도는 고학년과 저학년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학년용보다 비교적 문항의 내용이 쉽게 설명된 저학년용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정문항은 역채점 하여, 높은 점수일수록 자아탄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3> 자아탄력성 척도의 4가지 하위영역과 문항구분

하위영역	문항번호	긍정문항	부정문항
회복능력	4,5,12,13,17,24	4,5,12,13,17,24	
대인관계	2,7,10,11,14,15	7,11,14,15	2,10
스트레스 대처	1,3,6,18,20,22	6,22	1,3,18,20
인지능력	8,9,16,19,21,23	8,9,19,21,23	16

3) 내용 분석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종결 이후 인터뷰에서 참여자들의 경험과 자기변화에 대한 보고를 바탕으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3. 연구 설계 및 절차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집단 창작 중심 음악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를 설계하였다. 사전 검사는 음악치료 시작 전에 모두 동일한 환경에서 실시하였고, 사후검사는 음악치료 종료 직후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표 III-4>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

집단	사전검사	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O ₁	X	O ₂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 S구 소재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 5명을 대상으로 2016년 3월 11일 부터 2016년 4월 23일 까지 주 1-2회, 매 회기 당 60분씩 총 11회기로 진행되었다. 실험은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하였다.

4. 프로그램 구성

1) 프로그램 회기 구성

<표 III-5>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한 회기 구성

프로그램 단계	소요 시간	활동내용
도입	5분	- 인사 노래 - 호흡, 스트레칭 등 워밍업 활동
본 활동	50분	- 이야기 만들기, 시 쓰기, 그림그리기를 통한 치료적 노래 만들기 - 노래 부르기, 음악에 맞춰 악기 연주하기
마무리	5분	- 본 활동을 하면서 느낀점 나누기, 다음 회기에 진행 할 활동 소개 - 인사 노래

2) 프로그램 구성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향상을 목적으로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자기표현, 사회성 그리고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사회성, 자신감, 성취감 향상을 중점으로 구성되었다(Coopersmith, 1967/1986; 오은지, 2015; 홍은숙, 2006; 강희경, 2006). 전체 프로그램은 1-2 회기를 초기단계, 3-9회기를 작업단계, 10-11회기를 말기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초기 단계에는 자신을 소개하는 활동과 라포 형성을 위한 모방하기 게임 등을 실시하고, 앞으로 음악치료시간에 지켜야할 몇 가지 규칙을 정하며, 전반적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하였다. 또한 그룹원으로서 존재감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선호 곡 소개와 집단 멜로디 악기 연주 활동을 진행하였다. 작업 단계의 프로그램은 일차적으로 그림 그리기, 만들기, 이야기 만들기, 시 쓰기 등의 창작 예술 표현 활동을 기초로 아동들의 내면의 상상 또는 과거 경험에 대한 사고와 감정의 이미지와 이야기를 구상화하도록 하였다. 이 후 아동들은 미술과 글쓰기 과정에서 구상화한 주제를 바탕으로 음악, 노래 가사 만들기 작업을 하고 마지막으로 자신 또는 집단이 함께 만든 노래를 부르거나 그 노래에 맞춰 악기 연주를 한다. 다시 말해 그림, 글쓰기와 같은 구상화 작업을 통해 음악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함께 음악을 연주하고 감상하는 창의적 과정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내면의 세계를 만나게 하여 자유롭게 탐색 하도록 하고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찾아 외부 세상으로 연결하는 것을 돕는 ‘세상으로 예술을 가져오기’까지의 과정이다(Atkins & Williams, 2007/2010). 구체적으로 3, 5, 6, 7 회기에서 진행하는 활동이 이에 해당되며, 각 회기마다 ‘창의적 예술 표현-개인 창작물 공유 및 활용-공동 창작물 감상-공동 창작물 경험’의 순으로 활동이 진행되었

다. 4 회기와 8 회기에서는 가사 채워 넣기, 가사 만들기를 통해 노래를 완성하고 그에 어울리는 악기를 선택하여 리듬, 박자, 빠르기와 같은 음악적 요소를 자유롭게 창작, 연주, 지휘 하는 활동을 하였다. 9 회기에는 개개인이 전체 노래 가사를 창작하도록 하고 노래 가사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하여 치료사와 함께 터치벨 연주를 구성해 보았다. 말기단계에는 마지막 회기에 하게 될 작은 음악회를 위해 그동안 음악치료 시간에 했던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에 관해 토의를 하고 곡을 선정하여, 연습해 보았다. 또한 프로그램의 종결을 미리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공지하였다. 마지막 회기에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초대하여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집단 창작 중심 음악치료의 매 회기 활동내용 및 치료적 근거는 <표 III-6> 과 같다.

<표 III-6> 회기별 프로그램과 치료적 근거

단 계	회 기	목표	활동내용	치료적 근거
초 기	1	자기표 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자 원하는 애칭을 짓고, 개사된 <오블라디 오블라다-Beatles>노래에 맞춰 서로의 애칭을 넣어 노래 부르기. - 동작, 소리 미러링 및 전달 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의 가사 개사하기는 자기 표현과 그룹원간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다. - 모방활동은 소속감과 친밀감 형성하도록 한다.
	2	자기표 현 및 사회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아하는 노래 소개하기. - <작은별>, <사랑의 인사> 노래에 맞춰 콰이어차임 연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선호곡을 소개 (노래에 어떠한 점이 마음에 들었다고 설명)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자신을 개방하고 표현하도록 한다. - 집단 멜로디 연주는 각

			자 개인 역할을 수행하여 하나의 음악을 연주함으로써 그룹원들 간에 공통적인 성공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사회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장의 종이에 한 명 씩 돌아가며 각자가 떠오르는 그림을 그리고 집단원들의 토의를 통해 개개인의 그림 내용이 모두 포함된 하나의 이야기 만들기. - 창작된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에 맞는 악기를 고르고 나레이션에 맞춰 효과음을 함께 연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 활동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존재감을 인식하게 한다.
작업	4	자기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 네가 좋아>노래에 맞춰 '나는 000'로 자신을 표현하는 가사로 개사하여 부르고 이유를 간단히 설명한다. -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악기를 고르고 자유롭게 음악에 맞춰 악기 연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로 노래 가사 개사하기는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인지하도록 한다.
	5	자신감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사와 집단원이 한 명씩 순서대로 이야기의 전개를 창작해 나가기. (예: 옛날 어느 숲속에(집단원1)-코끼리가 살았는데(집단원2)..) - <코끼리 아저씨> 노래를 창작된 이야기로 개사하여 부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만의 독창적인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 전개와 악기 연주를 통해 공유하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유능감 경험하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사된 노래에 맞춰 그룹원들에게 악기 구성과 연주 구간을 지정해주고 연주 지휘해보기. 	
6	자기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스티나토를(C, G) 제공하여 즉흥 멜로디 노래하기. - ‘나’의 장점에 대해 ‘시’ 쓰기. - 창작된 ‘시’를 가사로 활용하여 즉흥 노래 부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 상기하고 재인지하는 과정은 긍정적 자기평가를 돕는다.
7	자기표현 및 사회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품과 곡물 등을 사용하여 자신만의 악기 만들기 및 악기 이름 짓기. - <오락실-한스밴드>노래 가사를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만든 악기 이름으로 개사하여 노래하며 악기 연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및 공동의 창작물을 활용하여 노래를 부르고 악기 연주를 하는 과정은 긍정적 자기평가와 타인에 의한 긍정적 자기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8	자신감 향상 및 사회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따리 샬바라>노래를 정서적 환기를 위한 행동에 관한 가사로 개사하여 부르기. - 리듬악기로 자신만의 리듬 만들어 연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이며 희망적인 생각의 내용으로 노래를 만들며 스스로를 비하하는 상황과 생각들에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 자신만의 독특한 리듬은 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극대화 한다.
9	사회성 향상 및 자기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샤워를 하지요>노래 가사를 자신만의 ‘자기 위로 방법’과 ‘방법적용 이후의 기분’으로 개사하여 부르기 - 개사된 노래로 노래 부르며 터치벨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 희망적 생각들을 객관적으로 지지하고 확립하도록 한다.
말	10 사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치료시간에 했던 활동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회를 위한 토의 과

	향상 및 자신감 향상	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 또는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노래 부르기 및 악기 연주하기.	정은 긍정적 경험 공유 하도록 돕는다. - 함께 노래하고 연주하는 것은 성공적 경험 회상 및 기대를 하게 한다.
기	사회성 향상, 자기표현	11 - 작은 음악회 하기	- 음악회는 집단원들간에 성취감을 공유하는 기회가 된다. - 연주 발표 과정은 자연스러운 상호작용과 자기표현을 이끌고 타인과의 관계, 리더십, 자신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모 한다.

5. 자료분석

본 연구가설의 검정을 위해 양적 자료 분석은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루어 졌으며, 질적 자료 분석은 음악치료 참여 대상자들의 자기변화 경험에 대한 보고를 바탕으로 이루어 졌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사항에 대한 빈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점수 차이 비교 분석을 위해 Wilcoxon Matched Pair 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각 척도의 하위요인에 대해 비교분석하여 결과가 유의미한지 알아보았다.

넷째, 대상자들의 질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개인 인터뷰를 실시하여 녹음하고, 이를 토대로 내용 분석을 하였다.

표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n=5) 통계적 분석은 비모수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이다.

IV. 연구결과

1. 양적 연구 결과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의 성비 및 학년 비율은 남자 3명(60%), 여자 2명(40%)이며, 1학년 1명(20%), 3학년 2명(40%), 4학년 2명(40%)으로, 분석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3	60.0
	여	2	40.0
학년	1학년	1	20.0
	2학년	0	0.0
	3학년	2	40.0
	4학년	2	40.0
	계	5	100.0

2) 자아존중감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1) 자아존중감 전체 점수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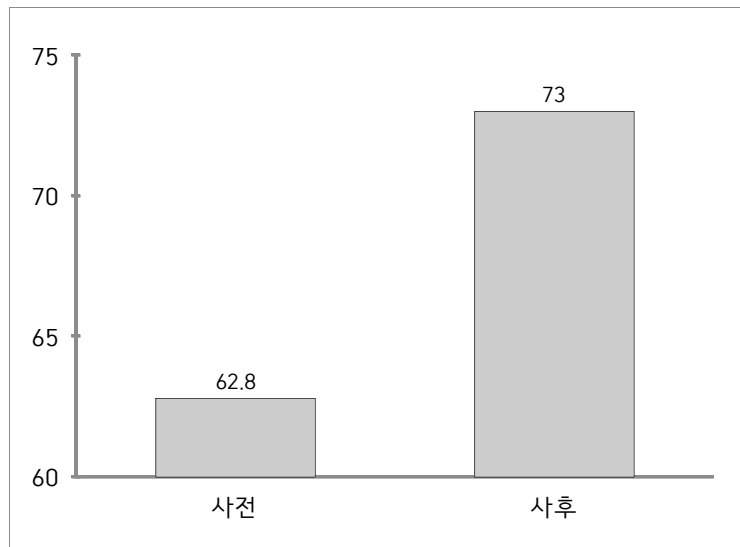
집단 창작 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의 평균과 사후검사 점수 평균을 Wilcoxon Matched Pair 검정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검정결과, 자아존중감 점수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p < .05$), 사전검사 점수에 비해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이 증가하였다. 이는 실험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이 프로그램 이후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2>, <그림 IV-1>과 같다.

<표 IV-2> 자아존중감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집단	평균(표준편차)		Z	p
	사전검사	사후검사		
자아존중감	62.80(9.12)	73.00(11.51)	-2.03	.042*

* $p < .05$



<그림 IV-1> 자아존중감의 사전·사후 평균점수

(2)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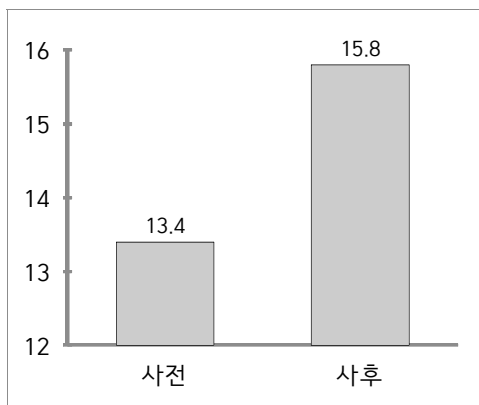
집단 창작 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의 평균과 사후검사 점수 평균을 Wilcoxon Matched Pair 검정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검정결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중 자기비하는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이며 사후검사의 평균점수가 증가하였다. 반면 타인과의 관계, 지도력과 인기, 자기주장과 불안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5$). 그러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하위요인도 모두 사후검사의 평균점수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3>, <그림 IV-2>, <그림 IV-3>, <그림 IV-4>, <그림 IV-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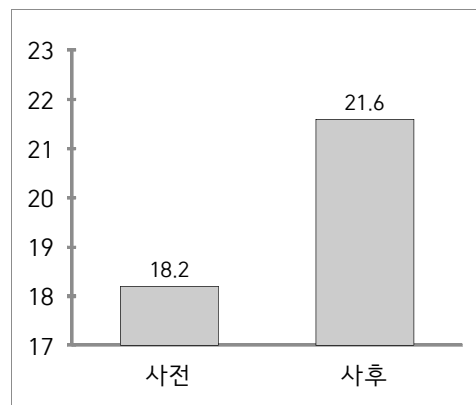
<표 IV-3>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측정치	평균(표준편차)		Z	p
	사전검사	사후검사		
자기비하	13.40 (3.05)	15.80 (2.39)	-2.04	.041 *
타인과의 관계	18.20 (4.66)	21.60 (3.85)	-1.84	.066
지도력과 인기	14.60 (3.36)	16.20 (3.27)	-1.08	.279
자기주장과 불안	16.60 (2.30)	19.40 (3.71)	-1.83	.0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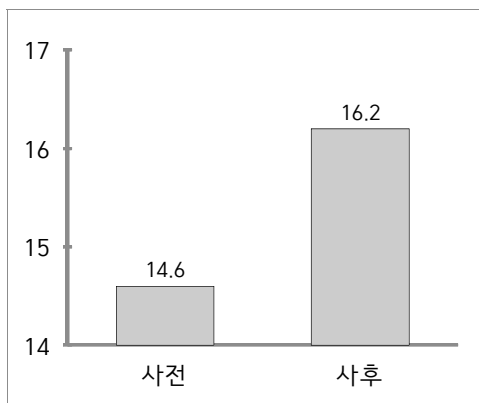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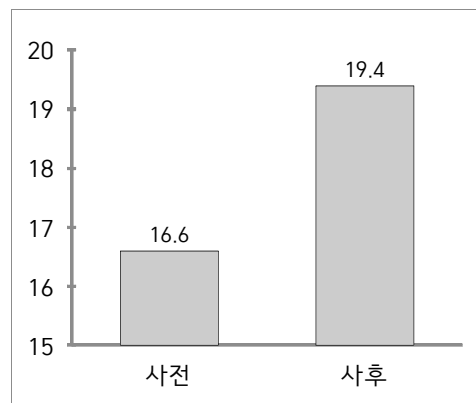
<그림 IV-2> 자기비하



<그림 IV-3> 타인과의 관계



<그림 IV-4> 지도력과 인기



<그림 IV-5> 자기주장과 불안

3) 자아탄력성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1) 자아탄력성 전체 점수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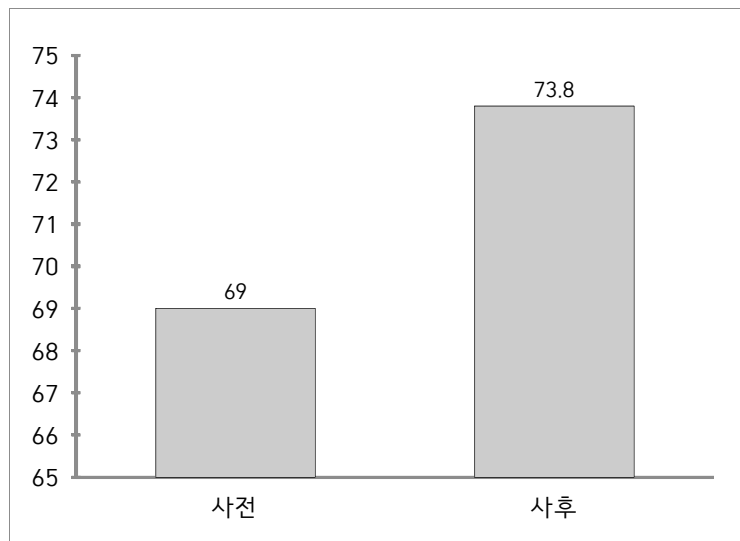
집단 창작 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의 평균과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을 Wilcoxon Matched Pair 검정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검정결과, 자아탄력성 점수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05$). 그러나 평균점수는 사전에 비해 사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4>, <그림 IV-6>과 같다.

<표 IV-4> 자아탄력성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집단	평균(표준편차)		Z	p
	사전검사	사후검사		
자아탄력성	69.00(7.18)	73.80(9.31)	-1.83	.068

* $p <.05$



<그림 IV-6> 자아탄력성의 사전·사후 평균점수

(2) 자아탄력성 하위요인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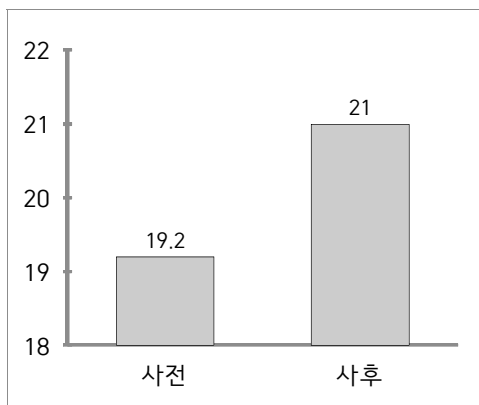
집단 창작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의 평균과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을 Wilcoxon Matched Pair 검정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검정결과,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은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05$). 하위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의 평균점수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5>, <그림 IV-7>, <그림 IV-8>, <그림 IV-9>, <그림 IV-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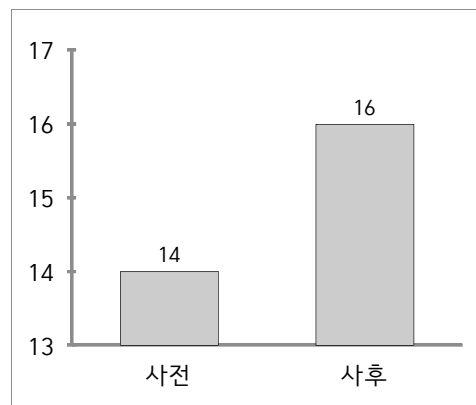
<표 IV-5> 자아탄력성 하위요인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측정치	평균(표준편차)		Z	p
	사전검사	사후검사		
회복능력	19.20(1.64)	21.00(2.35)	-1.46	.144
대인관계	14.00(4.64)	16.00(3.32)	-1.08	.279
스트레스 대처	19.20(1.64)	19.80(2.39)	-.55	.581
인지능력	16.60(2.30)	17.00(2.74)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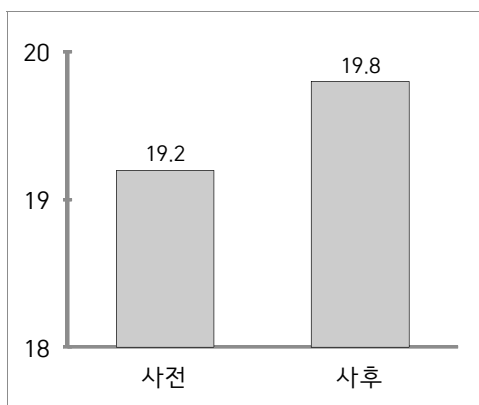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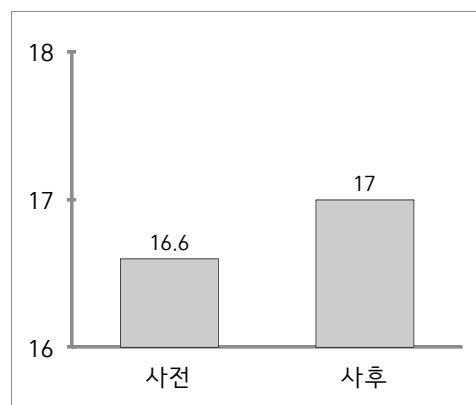
<그림 IV-7> 회복능력



<그림 IV-8> 대인관계



<그림 IV-9> 스트레스대처



<그림 IV-10> 인지능력

2. 질적 연구 결과

집단 창작 중심 음악치료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질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 종결 이후 아동의 경험과 자기변화에 관한 인터뷰를 실시하여 녹음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는 ‘긍정적 자기 인식’, ‘자기주장능력 향상’, ‘소속감’, ‘긍정적 대인관계’, ‘심리적 지지’ 로 5개의 하위요인이 도출되었고, 자아탄력성에는 ‘정서조절능력 향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으로 2개의 하위요인이 도출되었다. 질적 분석에서 도출된 7개의 요인은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척도의 하위요인 및 해당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범주화 되었다(Coopersmith, 1967/1986; 오은지, 2015; 김주남, 윤선아, 2011; 정혜인, 2010; 홍은숙, 2006; 강희경, 2005).

1) 자아존중감에 대한 경험 및 변화

집단 창작 중심 음악치료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 및 변화는 ‘긍정적 자기 인식’, ‘자기주장능력 향상’, ‘소속감’, ‘긍정적 대인관계’, ‘심리적 지지’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노래 만들기 악기 연주하기 등의 음악활동이 의미 있었으며, 함께 하는 즐거움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정서적 지원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참여자들의 보고 내용은 <표 IV-6>, <표 IV-7>, <표 IV-8>, <표 IV-9>, <표 IV-10>과 같다.

(1) 긍정적 자기 인식

집단 창작 중심 음악치료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노래 가사 만들기,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등의 활동에서 자기효능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노래가사로 만들고 악기 연주로 극대화 하면서 즉각적인 성취감과 피드백을 경험하도록 했던 과정이 개인의 잠재적 능력과 표현의 자신감을 가지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6> 자아존중감 경험 및 변화: 긍정적 자기 인식

	대상 1 : “노래 가사 만들고 노래 부르면 내가 자랑스러웠어요”, “처음 하는 것을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깐, 내가 이런걸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상 2 : “친구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게 부끄러웠는데, 한 번 해보니까 내가 잘 한 것 같아서 좋았어요” “음악활동 하면서 센터에서 제가 친구들한테 배려하고 양보해 줘서 다 같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서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긍정적 자기 인식	대상 3 : “음악활동시간에 노래도 부르고 악기 연주도 만들고 해보니까,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하는데, 나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대상 4 : “귀로 악기는 처음 봐서 어떻게 하는 줄 몰랐는데, 친구가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해봤더니 저도 잘 할 수 있었어요”
	대상 5 : “공연할 때, 마음이 긴장되었는데, 노래하고 악기 연주하고 하니깐 신났고, 계속 기억에 남고 좋아서 제가 잘 한 것 같아요”

(2) 자기주장능력 향상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집단 창작 중심 음악치료 참여를 통해 학교와 센터 내에서 자기주장을 하고 자기표현을 하는 것에 자신감이 생겼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 창작 중심 음악치료에서 경험한 개인 창작물 소개하기 및 노래 부르기 활동에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는 작업을 한 것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아동들에게 자신만의 악기 연주 구성하기, 집단원들과 함께 연주 구성 토의하기에서 해 보고 싶은 악기나 음악적 요소를 활용한 표현을 시도하고 수용 받은 경험이 지지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IV-7> 자아존중감 경험 및 변화: 자기주장능력 향상

자기주장능력 향상	대상 1 : “다른 친구들 앞에서 공연하니까 부끄러웠지만, 해 보니까 괜찮았고 재미있었어요.” “전에는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부끄러웠는데, 자꾸 연습 하니까 나아진 것 같아요.”
	대상 2 : “제가 좋아하는 노래 친구들한테 소개하면서 같이 들었을 때 좋았고 재미있었어요.” “학교에서 예전 보다 친구들한테 제가 먼저 말 걸고 놀자고 해요.”
	대상 3 : “학교에서 앞에 나와서 뭐 할 때 예전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친구들이랑 놀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부끄러워서 얘기 안했는데, 지금은 친구들이랑 놀 때 말하고 하니까 속 시원하고 좋아요.” “음악활동시간에 친구들이 내가 만든 악기 연주를 해주는 거 보니까 행복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친구들한테 가끔씩 부탁도 해요.”
	대상 4 : “옛날에는 학교에서 제가 친구들한테 말할 때, 친구

들이 못 알아들을 까봐 걱정 되서 말을 잘 안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말하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대상 5 : “학교 친구들과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내가 먼저 놀자고 해서 친해졌어요”

(3) 소속감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집단 창작 활동을 경험하며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알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집단 창작 중심 음악 치료는 개인 창작물을 공동창작물로 반영하여 활용하고 그 결과물을 함께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나의 것’에서 ‘우리의 것’으로 확대된 개념을 느끼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개념의 인식은 내담자 개인이 그룹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가지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표 IV-8> 자아존중감 경험 및 변화: 소속감

소속감	대상 1 : “혼자만 노래 불렀을 때는 외톨이 같은데, 친구들과랑 같이 부르니까 좋았어요”
	대상 2 : “공연할 때 혼자 노래하거나 연주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과이랑 같이 하니깐 덜 창피하고 재미있었어요.”
	대상 3 : “단체 활동은 다 함께 해야 해서, 센터친구들이랑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노래하고 연주해서 좋았어요.”
	대상 4 : “같이 하는 건 많았었는데, 이렇게 노래 부르고 악기 연주하는 것을 같이 하는 건 처음이라서 좋았어요.”
	대상 5 : “처음엔 노래 가사 만들고 모르는 노래 부르고 해서 조금 어려웠는데, 같이 노래 해보니까 좋았어요.”

(4) 긍정적 대인관계

집단 창작 중심 음악치료 참여자들은 상황에 따른 적절한 상호작용 경험과 또래 관계 기술의 향상을 보고하였다. 이는 타인의 노래 가사와 악기 연주를 경청하고 이해하는 것과 악기 연주 순서를 타협하고 양보하는 경험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긍정적인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개인의 생각과 집단원들의 생각이 담긴 창작물에 대한 조화로운 융합을 위해 대화하며 맞춰나가는 과정이 또래 관계 기술을 증진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IV-9> 자아존중감 경험 및 변화: 긍정적 대인관계

긍정적 대인관계	대상 1 : “전에는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나도 하고 싶으니 까 친구랑 싸우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양보하고 그 냥 조금 기다리고 같이해요”
	대상 2 : “음악활동 하기 전보다 학교친구들이랑 센터 친구들 이랑 편해지고 우정이 많아진 것 같아요”
	대상 3 : “동화 만드는 활동에서 효과음을 악기로 하니까 친 구들 생각이 뭘지 잘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맨 처음에 싸우고 그래서 서로 의견 맞추는 것이 힘들었는데, 점점 편찮아진 것 같아요”
	대상 4 : “친구들 노래들을 때 친구들 생각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대상 5 : “악기 연주할 때, 나도 하고 싶은 악기 했으니까 친 구한테도 양보해 주고 했더니 기분이 좋았어요”

(5) 심리적 지지

집단 창작 중심 음악치료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또래와 교사의 수용과 지지에서 긍정적인 심리·정서를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인 보고 내용을 통해 아동들은 자신에 대해 시를 쓰고 그 내용을 그룹원들에게 소개할 때 수용적인 환경을 경험하여 자기노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이 반영된 공동노래로 공연을 하면서 또래와 교사로 부터 받았던 지지적 피드백은 아동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강화하는 심리적 지원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IV-10> 자아존중감 경험 및 변화: 심리적 지지

심리적 지지	대상 1 : “내가 장점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처음 이야기했는데, 친구들이 무시하지 않고 들어줘서 좋았던 것 같고, 고마움을 느꼈어요.” “우리가 공연해서 센터 선생님이랑 다른 친구들이 칭찬해줄 때 기분이 좋았어요.”
	대상 2 : “제가 악기 연주를 지휘하니까 대장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잘하는 거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잘난척 한다고 할까봐 말 한적 없는 데, 이번에 처음해보니까 친구들이 들어줘서 좋았어요.”
	대상 3 : “내가 잘할 수 있는거 친구들 앞에서 보여주니까,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대상 4 : “선생님하고 친구들이 잘했다고 칭찬하면, 내가 잘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대상 5 : “제가 노래 만들고 선생님이랑 형아랑 누나한테 칭찬받을 때, 좋았어요.”

2) 자아탄력성에 대한 경험 및 변화

집단 창작 중심 음악치료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 및 변화는 ‘정서조절능력 향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즐거운 음악적 경험이 정서적 환기에 도움이 되며, 노래와 악기 연주 구성을 통해 음악을 완성해 나갔던 경험이 자기보상을 예상하게 하여 현실에서 현명한 시도를 하는 것을 도왔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참여자들의 보고 내용은 <표 IV-11>, <표 IV-12>와 같다.

(1) 정서조절능력 향상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집단 창작 중심 음악치료에서 실시한 노래 만들기와 악기 연주 경험이 정서적 환기를 도와 정서조절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음악적 활동 자체가 즐거움과 미학적 성취감을 주었으며, 부정적인 정서와 상황들에서 전환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도록 도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내면의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표출하는 새로운 방법으로서 노래와 악기 연주를 활용하여 자기조절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1> 자아탄력성 경험 및 변화: 정서조절능력 향상

	대상 1 : “오락실 노래가 신나고 재밌어서 자주 생각나요.” “좀 기분 안 좋을 때 오락실 노래 부르면 풀려요.”
정서조절능력 향상	대상 2 : “스트레스 받거나 짜증날 때, ‘오락실’ 노래랑 ‘샤워를 하지요’ 노래랑 ‘꿈따리 샤바라’ 노래랑 생각나서 노래 찾아서 듣거나 부르니까 기분이 괜찮아졌어요.” “예전에는 짜증나거나 심심하면 종이 찢고

그했는데, 요즘에는 노래 듣거나 부르고 그래요.”

대상 3 : “우리가 같이 했던 노래랑 악기 연주 생각하면 즐거워서 스트레스가 풀려요.” “기분 나쁜 것이 있을 때 예전에는 그냥 참았는데, 요즘에는 친구나 엄마한테 말해요.”

대상 4 : “음악활동해보니까 재미있어서 요즘에는 학교에서 악기 연주하면서 화풀이도 하고 스트레스가 풀려요.” “기분 나쁠 때 오락실 노래했던 거 생각하면 기분이 변해요.”

대상 5 : “기분이 짜증날 때 형아랑 누나랑 같이 ‘작은별’ 연주한 거 기억하면 좋아져요.” “재밌는 노래해서 기분이 좋아지니까 기분 나쁜걸 까먹어요.”

(2)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집단 창작 중심 음악치료에 참가한 대상자들은 스트레스 발생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사전에 어렵다고 생각되는 일을 외면하고 하기 싫었지만, 프로그램 안에서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생각의 변화와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자신을 탐색하는 것부터 공동의 음악을 완성하는 단계에 이르는 창작 과정이 개인의 능력을 발견하게 하고 성취행동에서 느끼는 자기 보상 경험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험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하고 일반화 하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IV-12> 자아탄력성 경험 및 변화: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대상 1 : “숙제가 하기 싫은 건 예전이랑 똑같은데, 그냥 빨리 끝나고 쉴 수 있으니까 빨리 해요” “노래 만드는 것도 어려웠는데, 자꾸 하다보니까 쉬운 것 같아요.”
	대상 2 : “전에는 하기 싫은거 하면 짜증났는데, 요즘에는 짜증나긴 하는데 그냥 하려고 해봐요”
	대상 3: “예전에는 어려운거나 하기 싫은 거 말 안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선생님한테 빨리 물어보고, 엄마아빠한테도 그냥 말해요.”
	대상 4 : “전에는 하기 싫은 일이나 숙제가 있으면, 아예 안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하려고 해요. 음악활동도 맨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고 힘들었는데, 마지막에 공연해보니까 재미있었어요.”
	대상 5 : “짜증나거나 우울할 때 노래 가사 만들었던 거랑 똑같이 해요, 그러면 잊어버려요.”

V. 결론

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집단 창작 중심 음악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는 서울시 S구 소재의 A 지역아동센터 아동 5명을 대상으로 2016년 3월 11일 부터 2016년 4월 23일 까지 주 1-2회, 매 회당 60분씩 총 11회기로 진행되었다. 자아존중감 척도와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여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변화를 알아보았으며, 자료의 비교 분석은 SPSS 20.0 Wilcoxon Matched Pair 검정을 통해 이루어 졌다. 또한 사후에 참여자 개인 인터뷰를 실시하여 녹음하고, 내용을 분석하여 아동의 경험과 질적인 변화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사전·사후검사 점수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이며 향상되었다.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은 모두 사전 검사 점수 평균 보다 사후 검사 점수 평균이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는 ‘자기비하’에서만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였다. 자아탄력성은 사전 검사 점수 평균에 비해 사후검사 점수 평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 > .05$).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p > .05$), 사전검사 점수 평균에 비해 사후검사 점수 평균 점수가 모두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문제 또는 새 학기 시작 후 이민자인 부모님의 별거로 겪는 정서적 불안이 실험기간 중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신체적 건강과 심리사회적 건강이 상관관계가 높다는 연구결과와(이보람, 박해준, 2012)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

력성은 가족건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조계연, 이은희, 2007)에 일치한다.

이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질적 변화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과 변화는 ‘긍정적 자기 인식’, ‘자기주장능력 향상’, ‘소속감’, ‘긍정적 대인관계’, ‘심리적 지지’로 5가지의 요인이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탄력성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과 변화는 ‘정서조절능력 향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으로 2가지 요인이 나타났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집단 창작 중심 음악치료를 통해 존재감과, 자기효능감을 느끼고 자연스러운 상호작용과 성공적 경험을 하여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들은 음악활동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정서적 환기와 자기보상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하여 지혜로운 상황 대처와 적응 방법을 익히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집단 창작 중심 음악치료 시, 아동들은 초기에는 특정한 주제가 주어지지 않고 자유롭게 그림이나 글 등으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과 한계를 보였으나, 점차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자유롭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대해 일관적으로 비슷한 몇 가지의 단어로만 짧게 표현하는 모습에서 중재 후반부로 갈수록 자신의 뜻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전달하려고 하는 변화된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그림, 글쓰기, 음악이 아동들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자기표현을 훈련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자기표현에 자신감을 가지게 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적 표현을 기반으로 하는 치료적 노래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과 검증으로 새로운 치료적 접근 방법 모색에 그 기초 연구를 제공한다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2. 제언

본 연구는 집단 창작 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재라는 것을 확인하며, 예술 치료 분야에 새로운 치료적 접근 방법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연구를 제공함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었다. 이러한 제한점과 향후 연구의 보완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단일집단만을 대상으로 집단 창작 중심 음악치료에 대한 효과성을 알아보았다. 향후 치료 중재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화를 위해서는 통제집단과 비교집단을 두고 집단 간에 그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프로그램에 활용된 창작 예술은 미술과 문학 분야로 국한되었다. 집단 창작 중심 음악치료는 다양한 예술 분야의 창작과정을 기반으로 치료적 노래 만들기 활동을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므로, 무용, 연극과 같은 분야와의 접목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연구의 대상이 A지역아동센터 아동 5명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는 추후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인원수의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넷째, 실험 기간과 중재 적용 회기가 11회기로 짧아 그 효과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효과를 입증하고 이를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계획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재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못하였으나, 유의미한 질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장기간 계획 후속 연구에서는 집단 창작 중심 음악치료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유의미한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경선 (2011). 승화로서 예술의 치료적 기능에 관한 고찰. **예술심리치료연구**, 7(3), 21-37.
- 강명희, 신근화 (2011). 집단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아시아아동복지연구**, 9(2), 85-111.
- 강영하 (2012).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학교행복 간의 관계. **학습전략중재연구**, 3(1), 107-123.
- 강정숙 (2005). 집단음악활동 프로그램이 결손가정 자녀들의 정서변화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강지현 (2009).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행동문제 감소를 위한 집단치료놀이의 효과. **방과후아동지도연구**, 6(1), 1-16.
- 강희경 (2005). 가족의 건강성과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93-102.
- 강희경 (2006).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대한가정학회지**, 44(11), 149-159.
- 강희숙, 최세영 (2012). 집단미술활동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8(4), 167-190.
- 고영희 (2010).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관련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공성애, 문혁준 (2015). 부모 간 갈등과 아동의 분노조절관계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아동과 권리**, 19(4), 687-707.
- 구은미 (2010).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질과 전문성에 관한 교사의 인식. **아동교육**, 19(2), 5-15.

- 국립특수교육원 (2009).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하우출판사.
- 김경빈 (2002). 창작표현을 매체로 한 무용·동작치료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동주 (2011). 창의적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학습동기 증진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미숙 (2006). 지역사회 빈곤아동 지원정책 고찰 : 지역아동센터 정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11(-), 78-90.
- 김민경 (2013). 자기표현 중심의 음악치료가 틱 장애 아동의 틱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민성, 박신희 (2015).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16(2), 55-82.
- 김소영, 이근매 (2010).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위한 사회성 향상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미술치료연구**, 17(6), 1333-1355.
- 김숙정 (2013). 음악극 만들기 경험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표현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대학원.
- 김양이, 박미란 (2007).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4(3), 61-90.
- 김은주, 이승희 (2013). 초등학생 자아탄력성과 정서행동문제의 관계 및 학업성취수준별 차이. **정서·행동장애연구**, 29(2), 25-44.
- 김주남, 윤선아 (2011).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자아존중감의 의미와 필요성 : 아동기를 중심으로. **뇌교육연구**, 7(-), 89-108.
- 김주완 (2005). 예술창작의 존재론적 본질. **철학연구**, 96(-), 193-213.
- 김진아, 한귀례 (2014). 부모양육태도와 정서문제의 관계구조. **상담학연구**, 15(6), 2379-2399.
- 김치영, 김선미 (2014). 지역아동센터 발달과정과 발전방향 연구. **아동교육**,

- 23(4), 243-261.
- 김현정, 최은영 (2014).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부모자녀관계, 사회적 자본, 자아존중감. **보건사회연구**, 34(1), 239-267.
- 김혜정, 양은아 (2013).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또래 관계 기술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9(4), 75-96.
- 김희정, 정다운 (2011). 방과후 자아존중감 프로그램 참여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생태유아교육연구**, 10(4), 71-90.
- 남여정 (2009). 노래만들기를 사용한 음악활동이 알코올 의존자 자녀의 분노표현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노성향, 서혜진 (2014).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만족도 및 요구분석. **방과후아동지도연구**, 11(1), 31-48.
- 노은숙 (2010).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및 통제소재와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도금혜 (2008). 아동의 자아존중감, 섭식태도 및 학교생활적응이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21(3), 111-125.
- 류분순 (2009). 무용/동작치료의 이해와 현황 및 효과. **모드니 예술**, 2(-), 47-60.
- 류우리 (2015).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 마주리 (2014). 심리운동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아동복지연구**, 12(3), 187-206.

- 박명숙 (2010).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0(2), 193-218.
- 박미화, 김미정 (2015). 또래 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발달지원연구**, 4(1), 1-19.
- 박상희 (2009).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실패대성, 학교적응 관계 연구. **초등교육학연구**, 16(2), 59-81.
- 박시혜자, 송승민, 이유현 (2011). 무상급식 수혜 대상인 빈곤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 비빈곤아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2(3), 407-416.
- 박태정, 박형원, 이희연 (2010).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3(-), 75-109.
- 박희연 (2012). 창작음악극을 이용한 음악치료가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6). 2016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https://www.icareinfo.info>로부터 2016년 3월 9일 검색.
- 손남숙, 임호찬 (2004). 집단미술치료가 보육시설아동의 우울성향 감소에 미치는 영향. **미술치료연구**, 11(3), 455-479.
- 손정규 (2014). 인지행동음악치료가 여대생의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10(10), 99-121.
- 송명희, 오영이 (2013). 시쓰기를 통한 문학치료 사례 연구 -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어문교육**, 28(-), 121-154.
- 송 숙 (2009). 지역아동센터의 정규운영프로그램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영신학대학교 상

담복지대학원.

- 송연옥 (2011). 연극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1(1), 131-152.
- 송인섭 (2013). **자아개념**. 서울: 학지사.
- 신아름 (2014). 노래 만들기를 통한 정서 행동 문제 청소년의 유능감 강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지현 (2008). 저소득 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자아존중감 및 자기통제력과 환경 변인의 중재 효과.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신희건 (2015). 학령기 후기 아동의 삶의 질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자료분석학회지**, 17(1), 485-499.
- 오미경, 이수희 (2010). 집단놀이치료 활동을 통한 한부모 가족 방임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문제행동에 대한 사례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2(4), 237-259.
- 오은주 (2006). 초등학생의 또래 칭찬활동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초등상담연구**, 5(1), 159-184.
- 오은지 (2015).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 육경희, 김미혜, 천희영 (2001). 저소득층 아동의 학업, 정서 및 사회성 발달 : 부모보호와 자기보호 비교. **아동학회지**, 22(2), 91-111.
- 유은애 (2008).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정서적 적응의 관계. **사회복지 학생연구논총**, 1(-), 82-103.
- 유장순, 이철원 (2014). 자긍심과 자아탄력성 증진 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비행 성향에 미치는 영향. **교정복지연구**, 32(-), 83-109.
- 윤다솔 (2016). 치료적 노래 만들기가 고등학교 특수학급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

대학교 대학원.

윤향미, 조문석, 오재록 (2013). 방과후 돌봄서비스사업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7(1), 181-203.

이가나, 김유미 (2013). 이야기치료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초등상담연구**, 12(1), 33-48.

이경희, 성춘희, 김미정 (2014). 연구논문 : 저소득층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행동과 학교적응유연성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11), 1-28.

이모영 (2008). 예술심리치료에서 예술의 창조적 차원에 대한 고찰 : 예술에 대한 인지적 관점을 중심으로. **예술심리치료연구**, 4(2), 109-129.

이모영 (2009). 미술의 치료적 기능에 관한 탐색적 고찰 : 지각적 경험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미술치료연구**, 16(5), 829-848.

이민화 (2014). 노래중심 집단음악치료 활동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이보람, 박해준 (2012). 학령기 아동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건강상태에 따른 주관적인 삶의 질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만성질환과 정서 행동문제를 가진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아동학회지**, 33(1), 1-21.

이일경 (2015). 통합적 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1(3), 285-305.

이종석, 정득 (2015).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환경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의 조절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10), 6595-6603.

이주연, 이지영 (2014).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우울에 미치

- 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방과후아동지도연구**, 11(1), 13-30.
- 이현주 (2011). 집단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미술치료연구**, 18(2), 245-266.
- 이훈, 신혜중 (2008).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홍성군 아동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4(1), 167-193.
- 이희정 (2014). 저소득층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의 중단적 변화와 예측변인 -양육행동과 또래관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46(-), 115-141.
- 임윤영 (2013). 노래 만들기 활동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임은주, 최승숙 (2015). 초등학교 일반아동과 학습부진아동의 탄력성 연구. **학습장애연구**, 12(1), 47-68.
- 임정기, 박현선, 정익중 (2015).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의 인식을 통해 본 지역 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67(2), 285-310.
- 임현정 (2009). 노래심리치료가 내재화된 정서 문제를 갖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승희 (2007). 치료적 노래 만들기 활동이 청소년의 열등감 감소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윤진 (2010). 집단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0(2), 27-50.
- 정진희, 정규진, 최애나 (2015). 톤차임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주의집중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1(4), 213-233.
- 정혜인 (2010). 아동의 학교적응성 탐색을 위한 자아탄력성척도 개발. **초등**

- 교육연구, 23(2), 361-382.
- 정희옥 (2003). 초·중·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와의 관계 :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0(4), 443-458.
- 조경애, 강경선 (2014). 집단음악심리치료가 저소득층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예술교육연구**, 12(1), 85-103.
- 조계연, 이은희 (2007). 초기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 부모의 양육행동, 가족 건강성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의 매개역할. **한국청소년연구**, 18(1), 79-106.
- 조효숙, 이진숙 (2008). 관련연구 :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우울, 자아존중감,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연구**, 12(3), 105-123.
- 조희숙 (2007). 저소득층 초등학생의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자기 효능감 및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조희주 (2011). 해결중심 독서치료가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조희주 (2015). 문학치료 임상에서 공감나누기의 치료적 기능과 의미 : 개방병동의 조현병 환자를 사례로. **문학치료연구**, 37(-), 351-378.
- 지명숙, 홍상욱 (2014). 독서치료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소규모 농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연구**, 11(1), 51-68.
- 최경순, 정현희 (1996). 저소득층 취업모 자기보호 아동의 사회적 능력, 또래 관계 및 정서발달. **아동학회지**, 17(2), 107-119.
- 최미래, 이인혜 (2003).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 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363-383.
- 최윤영 (2010). 집단 무용치료가 부자 가정 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

- 과. **한국무용학회지**, 10(2), 35-47.
- 최애나 (2007). 음악치료가 소득계층별 아동의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3(3), 129-164.
- 최재영 (2004). 미술치료를 위한 창조성과 치유에 관한 고찰. **아동미술교육**, - (3), 127-146.
- 최혜주, 문수백 (2012).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4), 435-451.
- 한성심, 김현자, 허정경 (2007).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발전을 위한 기초 방안 연구. **방과후아동지도연구**, 4(1), 65-83.
- 허혜진 (2010).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또래 관계 기술 증진을 위한 창작 음악극 프로그램 효과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7(1), 37-59.
- 홍은숙 (2006). 탄력성(resilience)의 개념적 이해와 교육적 방안. **특수교육학연구**, 41(2), 45-67.
- 홍상황, 이경연 (2013). 아동의 거부민감성과 자아존중감과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12(1), 69-86.
- 황혜원 (2013). 가족탄력성과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및 양육행동이 저소득층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일반가정 유아와 다문화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2), 81-103.
- Atkins, Sally., & Williams, L. D. (2007). *The Expressive Arts Therapy Sourcebook*. 최은정, 김미낭 (역). **표현예술치료 소스북**.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0).
- Austin, D. (2008). *The Theory and Practice of Vocal Psychotherapy : Song of the Self*. 한국성악심리치료사협회 (역). **성악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시그마프레스. (2012).
- Baker, F., & Wigram, T. (2005). *Songwriting; Methods, Techniques and*

- Clinical Application for Music Therapy Clinicians, Educators and Students. 최미환(역). **치료적 노래 만들기**. 서울: 학지사. (2008).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e ;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Nathan, A. A., & Mirviss, S. (1998). Therapy Techniques: Using the Creative Arts. 박희석, 류정미, 윤명희 (역). **창조적 예술치료기법**. 서울: 학지사. (2011).
- Schacter, D. L., Gilbert, D. T., Wegner, D. M. (2011). Introducing psychology. 민경환, 김명선, 김영진 (역). **심리학 입문**.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2).

ABSTRACT

The Effects of Group Music Therapy focused on Creative Music Making on the Self-esteem and Self-resilience for Children in Community Child Center

Back, Su-jeong
Departmen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 effects of group music therapy focused on creative music making on the self-esteem and self-resilience for children in community child center. This study was conducted at A community child center in S-gu, Seoul, Korea, for 60 minutes per session, once or twice in a week for 11 sessions total from 11 March to 23 April in 2016.

To measure the effect of the program, pre- and post-test were utilized and through SPSS 20.0 Wilcoxon Matched Pair Test the results were analyzed.

And in order to study qualitative change of self-esteem and

self-resilience for the children in community child center, sub-factors were built around the interview recording with respect to experience and change of participants.

In the result of quantitative research, self-esteem of the children in community child center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e- and post-test scores, $p < .05$. However, it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e-and post test in self-resilience score, $p > .05$, there was a tendency that the score was increased.

In the result of qualitative research, meanwhile, the change of experience toward self-esteem drew five sub-factors positive self-recognition, improvement of self-assertion, sense of belonging, positive personal relationship and psychological support and the experience change toward self-resilience drew two sub-factors advancement of ability for emotional control and stress adapta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reation-focused group music therapy has a positive effect on both self-esteem and self-resilience, furthermore, suggest possibility of development of new mediation method for music therapy.

부 록

<부록 1> 자아존중감 척도

<부록 2> 자아탄력성 척도 저학년용

<부록 3>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

<부록 1> 자아존중감 척도

1. 여러분의 성별은?
(여자 / 남자)
2. 몇 학년입니까?
() 학년

♣ 다음의 질문은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 입니다.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 한 칸에만 ○표를 하면 됩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나는 가끔 내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고 바란다.				
2.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3. 나에게는 고쳐야 할 점이 많다.				
4. 나는 어렵지 않게 마음을 결정 할 수 있다.				
5.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재미있게 지낸다.				
6. 가족 중엔 나에게 관심을 보여 주는 사람이 없다.				
7. 나는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8. 나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				
9. 우리 가족은 나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한다.				
10. 우리 가족은 대체로 내 기분을 이해해 주는 편이다.				
11. 나는 매번 쉽게 포기하는 편이다.				
12. 나는 비교적 남보다 행복한 편이다.				

13. 나의 생활은 뒤죽박죽이다.				
14.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을 따라주는 편이다.				
15. 나 자신에 대해 별로 내 세울 것이 없다.				
16. 나는 집을 나가버리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17. 종종 내가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18. 나는 외모가 그리 예쁜/멋진 편이 아니다.				
19. 나는 할 말이 있을 때 대부분 그 말을 하는 편이다.				
20. 우리 가족들이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				
21.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별로 사랑 받지 못한다.				
22. 어떤 때는 가족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23.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실망을 느낄 때가 많다.				
24. 나는 모든 것이 그다지 어렵게 생각되지 않는다.				
25.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의지해도 될 만큼 강하지 못하다.				

<부록 2> 자아탄력성 척도 저학년용

문항	대부분 아니다	가끔 아니다	가끔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1. 음식을 혼자 먹을까봐 매일 걱정이 된다. *				
2. 단짝 친구가 안 놀아 주면 속상해서 계속 생각 난다. *				
3. 어려운 문제를 보면 갑자기 아프거나 집에 가고 싶다. *				
4. 다음번에는 더 잘 할 수 있다.				
5. 어려운 일은 언제나 있다.				
6. 친구보다 잘 못하는 게 있어도 괜찮다.				
7. 우리 집이 친구 집보다 더 재미있다.				
8. 준비물을 안 가져가도 선생님께 혼나지 않는다.				
9. 알고 있는 것을 물어면 크게 대답할 수 있다.				
10. 혼자 하기 어려운 숙제라도 안 물어본다. *				
11. 친한 친구는 내 물건을 맡 안하고 써도 된다.				
12. 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안다.				
13. 선생님이 나를 보고 웃어주시면 기분이 좋다.				
14. 처음 만나는 친구와도 잘 논다.				
15. 내 생일에 초대할 친구가 5명 보다 많다.				
16. 내 짝이 아파서 결석해도 걱정되지 않는다. *				
17. 나는 친구들을 좋아한다.				
18. 내가 반장이 됐으면 하는 생각은 안한다. *				

19. 숙제는 모두 해야 한다.				
20. 학원에 늦으면 혼날까봐 아예 안 간다. *				
21. 공부시간에 몰래 나가서 놀지 않는다.				
22. 싫어하는 공부만 시켜도 학교는 다녀야 한다.				
23.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다.				
24. 내 답이 친구들의 답과 다르면 이상하다.				

<부록 3>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집단 창작 중심 음악 활동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본 음악활동 프로그램은 아동들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해
이야기, 그림, 노래, 악기, 음악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창작 활동을
시도합니다.

위의 활동에서 수집될 사전·사후 설문지와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반응은 익명 처리하여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나,
모든 아동의 개인적인 정보는 사적인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00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하는 본 활동에 참여를 동의합니다.

부모님 _____(인)

아동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석사과정 백수정